

“한 권사님의 순종이 세운 교회”

태국 산골, 후에이뿌샌디교회 헌당... 참좋은교회 선교 열매 맺다

부천 참좋은교회 박용철 담임목사와 두 장로 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4일까지 태국 선교지 방문을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선교 여행이 아닌, 오랜 기도와 헌신의 결실인 헌당예배를 드리기 위한 감격적인 여정이었다.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본 교회 90세 권사의 3천만 원 헌금이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헌금은, 태국 북부 깊은 산골 마을에 ‘후에이뿌샌디교회’를 세우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다.

‘후에이뿌샌디(Huai Pu Saen Dee)’라는 이름에서 ‘샌디(Saen Dee)’는 태국어로 ‘참좋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교회는 참좋은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함께 세운 ‘참좋은’ 복음의 터전이며, 태국에 설립한 두 번째 지교회이다. 교회는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라후족 루앙게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산을 넘어야 도달할 수 있는 험한 지역이지만, 그곳에는 살아 있는 예배와 기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

후에이뿌샌디교회는 웅연 전도사(63세)가 27년 전 개척한 교회로 현재 세례교인 93명,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성도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깊은 산속에 세워진 작은 교회이지만, 오히려 젊은 세대가 모이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다. 전도사의 아들 디차(30세)는 파압대학교와 KCM 목회자 훈련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사역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리더로 성장 중이다.

이번 교회 건축은 참좋은교회가 파송한 황승선·노은아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KCM선교센터를 통해 진행되었다. KCM은 2016년 참좋은교회가 태국 선교를 본격화하며 세운 선교기지로, 현재까지 총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었다. 후에이뿌샌디교회는 그 10번째 교회이자, 이름과 의미 모두에서 참좋은교회의 선교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결실이다.

2024년 5월 참좋은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박용철 목사는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선교의 현장과 성도들의 헌신을 직접 확인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보다 한 사람의 순종과 눈물로 세워진다”며, “참좋은교회가 지닌 선교적 유산을 더욱 힘있게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후에이뿌샌디교회는 단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헌신, 믿음의 계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교회의 순종이 모여 세운 ‘복음의 등불’이다. 이 복음의 빛이 태국의 산골을 넘어 열방으로 퍼져가기를 기대한다.

성경대 24기 동기회, 필리핀 톤토 선교센터 선교사역

현지 성도들 대상으로 세미나(집회)와 침례(세례)식 진행



지난 6월 10일(화)~13일(금)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성경대 24기 동기회(회장 진상만 목사)에서 진상만 목사(오산교회)와 한은기 목사(대신교회)가 필리핀 마닐라 톤토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숙향 선교사를 방문하여 세미나(집회)와

침례(세례)식을 인도하고 돌아왔다.

이번 침례식에는 130명이 세례를 받았으며, 선교지에서 귀한 열매 맺고 있는 김숙향 선교사와 함께 후원 아동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

특별히 이번 선교사역을 통해 동기회

에서는 김숙향 선교사에게 후원금도 전달했다.

김숙향 선교사는 필리핀 톤토의 러브센터와 드림센터 두 곳을 섬기고 있다.

■ 선교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정(1) 알바니아 주준성 선교사

외롭고 방황했던 시절, 그 속에서 만난 주님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어린 시절, 여러 사연과 아픔을 안고 자랐습니다. 1980년대 초, 여섯 살 무렵부터 대한민국 장 앞 가판대에서 영화 렌터 책자를 팔며 세상과 처음 마주했고, 이후 조종고 시절 동안 신문 배달, 전단지 배포,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었다기보다, “자신의 필요는 스스로 해결한다”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립을 배우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오늘날 제 삶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책임감과 자립심을 가르치는 철학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형과 누나는 한창 바빴고, 어린 저는 늘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레 저를 바깥세상으로 이끌었고, 골목과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제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초등학교 입학 전의 제가 퇴계로 일대를 정처 없이 떠돌다 파출소나 미아 보호소에 맡겨지곤 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방 벽지 한편에는 미아 보호소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한때는 고아원까지 보내졌다가 간신히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든 고난과 외로움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한 훈련이었습니 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방황과 아픔은 오히려 선교사로 가는 여정의 디딤돌이었고, 그 광야의 시간들은 주님의 손길 속에 다듬어지고 다져진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명동성당 인근에서 카톨릭 신앙생활을 잠시 하다가, 가족이 강남으로 이사하며 동네 개신교 주일학교 전도 행사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학생에게 주어지는 환영 선물과 따뜻한 인사가 어린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새한교회, 영동중앙교회, 총천교회, 소광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 큰 교회들이 주 대상이었고, 그 신앙 여정은 복음을 향한 열정보다는 외적 만족을 좇는 어린 시절의 표류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개인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출생과 가족 관계에 얽힌 아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은 내면의 외로움과 방황을 더욱 깊게 만들었고, 결국 사춘기의 혼란

과 일탈로 이어졌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가지 팔아야 할 길을 걸으며 자존감과 정체성을 잃어갔고, 무기력함과 공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사당동의 작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급세 떠날 생각이었지만, 작은 교회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곳은 결국 제가 ‘영적 모교’라 부르게 된 신앙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차근차근 배우며 신앙의 뿌리를 내렸고, 목사님의 설교를 정성껏 메모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교회는 대학 시절 선교사를 꿈꾸며 휴학을 결심했을 때 저를 단기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고, 지금까지도 30년 넘게 후원과 기도도 제 사역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배움은 한 시절의 기억을 넘어, 제 삶과 사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일 중 하나는, 제가 신앙 안에서 성장한 후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 신앙의 길로 이끈 일입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도 권사로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시작, 그리고 선교사로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당시 서울 강남 8학군에 속한 압구정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이후 신학대학에 진학했을 때 ‘강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의 실제 삶과는 무관한 다른 시선과 관계로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곳은 공립학교로 종교 활동이 금지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생님께서 주도하에 방과 후 비공식적 기독교생반(KCS)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후 저는 고교 졸업 때까지 전교생 사이에서 입에 오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기독교생반 모임을 권유하고 이끌었습니다. 선배들과 함께 다양한 선행 활동을 펼치며, 학교 내에서 선행 기록 서클로서의 이미지를 점차 쌓아갔습니다. 비록 ‘비공식 클럽 모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결

국에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마다 학교 앞 소광교회 찬양 집회에 서를 선배들과 함께 참석하면서, 이전의 방황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여정 속에서 저는 단순히 일상적인 대학 진학이나 평범한 삶이 아닌, 사역자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고등학교 1학년, 5월 소광교회 목요 찬양 집회에서였습니다. 집회 중, 청장년들을 향한 선교의 부르심이 선포되었고, 그 순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던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세상이 주는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왔던 저에게, 주님을 만나 이렇게 내 자신이 회복되고 삶의 목적을 찾고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통한 회복이며, 이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에게 주어졌던 이 선교적 부르심에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곧 선교는 복음을 통한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그 회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여정이었고 그날, 저는 제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은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고, 방황하던 십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는 선배들과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가족 같은 작은 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과 교역자분들을 통해 저를 다듬어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성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선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신학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 1993년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신학대학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선교사로서의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밟는 첫 단계였습니다.



주준성 선교사



주님께서, 세운기업 세운기계!

신제품 개발로 끊임없이 진보하는 - 세운

30년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CNC 목공기계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운기계는 꾸준한 신제품 개발로 소비자 만족 경영을 실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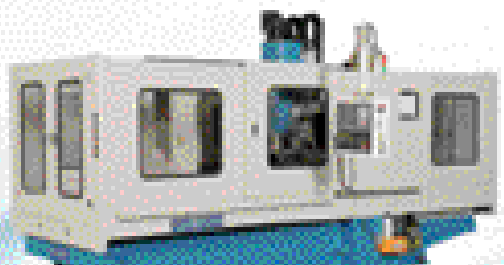
각종 목재가공 산업은 물론 알미늄, PVC 등 비철가공 산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주의와 사후관리로 귀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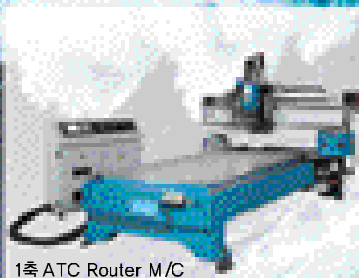
대표이사
윤택수
창조는 교회



4축 ATC CNC Router M/C
3D가공의 강자 · 목재가공 · 전기기타 등



CNC 목공기계 CNC Router M/C
알미늄, PVC 등 비철가공



1축 ATC Router M/C
목재 및 아크릴 가공용 CNC 머신



CNC T-CUT SAW M/C
목재 및 메라민 가공용 CNC 절단 머신



woodworking machine
SEYOOON

www.seyoon.co.kr | 본사 및 공장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77번길 17 우 22774 | TEL : 032-665-2496, 7 / FAX : 032-666-9640